

말씀의 샘

순종과 믿음 <누가복음 17:5~10>

보통 유언이라 함은, 가장 중요한 말을, 가장 의미 있는 대상에게 남기는 것입니다. 절대로 장황하지 않습니다. 가장 해주고 싶었던 말을 집약해서 떠나기 전, 그 힘겨운 순간에 핵심적으로 남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과 제자들에게 수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분이 승천하기 전 제자들에게 남기신 유언은 이렇습니다. **마 28:16~20은 '가서 제자 삼고 성부성자성령의 이름으로 세례주고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오늘날 지상명령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가서 전도해서 제자 삼으라는 것입니다. 영혼을 살리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마지막 한 마디는 영혼을 살리고 세우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또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전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마지막 유언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한마디로 "성령 받고 예수의 증인되라!"는 것입니다. 절대 복잡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을 직접 본 사람을 약 500명으로 추정합니다. **고전 15:6 그 후에 오백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 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라 함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를 말합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여러 가지 정황상, 500명이 일시에 모인 장소를 예수님 승천하신 감람산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경 1km정도의 가까운 거리인 마가의 다락방에는 120명만 모인 것으로 사도행전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확실하고도 단순한 사명에 많은 이들이 집중하지 않은 것입니다. **행 1:14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전도사명에 집중하고 기도하기 위해 모인 공동체로부터 출발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성령을 충만하게 받습니다. **행 2:12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나 하려 13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그랬더니 베드로를 보십시오. **행 2:14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바로 전도로 이어집니다. 성령 받은 직후 바로 전도 사명에 집중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행 2:40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41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매 이 날에 신도의 수가 삼천이나 더하더라** 마지막 예수님의 유언인 성령 받고 예수증인 되는 것을 곧바로 실행한 것입니다. 이제부터 그들은 전도사명에 모든 삶을 집중합니다.

행 3:10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11 나는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12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성전 미문에 있던 앓은뱅이를 일으킨 다음에도 예수를 증거하는 것으로 곧 이어집니다. 사명에 집중하는 삶은 성령의 능력이 있으며 확실한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행 4:4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오천이나 되었더라** 초대교회가 성령충만을 계속 유지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지지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다름 아닌 전도의 사명에 모든 삶을 드러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처럼 "성령 받고 내 증인되라"의 순서처럼 성령을 받았으니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겠지만 왜 우리가 성령이 충만한 수련회를 다녀와서, 전도의 사명에 더욱 집중해야만 하는지를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보고 싶습니다.

첫째, 전도의 사명이 회복될 때 은혜도 회복됩니다.

베드로의 설교로 수천명이 돌아오는 기적이 있던 후에, 워낙 성령의 나타남이 강력하고 믿는 수가 많아지니 유대의 종교지도자들이 위협을 느낍니다. 그래서 베드로 요한 가두고 공개재판을 하고 다시는 예수에 대해서 가르치지 말라고 강력하게 위협합니다. 예수의 증인이 되야 하는데 위협이 있으니 또 기도하는 수밖에요.

행 4:29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며 30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31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성령 충만을 다시 요구하는 목적이 이 본문에서 무엇입니까? 담대히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사명에 집중하여 전도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빌기를 다 하자마자 그 자리가 진동할 정도로 강력한 성령의 은혜가 다시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복음 사명에 집중하려는 자에게 아낌없는 은혜를 풍성하고도 즉각적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고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 찬송, 예배들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감동이 없고 신앙생활에 매너리즘이 찾아오는 것은 많은 복잡한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전도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럴 경우가 가장 많은 것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눈물이 메마르고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기 시작하고 있다면 영혼구원의 사명을 회복하면서 성령의 감동도 강해지고 은혜도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죽고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큰 슬픔에 빠집니다. 좋았던 분위기가 가라앉고 사람들은 흩어지기 시작하지만 전도의 사명에 집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행 8:4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5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6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7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8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슬픔과 어려움을 당했다 할지라도 사명에 집중하는 자리에는 그 현장에서 다시 은혜와 기쁨이 회복됨을 알 수 있습니다.

둘째, 전도사명에 집중할 때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행 1:8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결국 성령은 하나님 자신이시며 전도의 영이며, 예수를 증거하는 영인 것입니다. 한 마디로 예수를 증거하는데 모든 것을 주도하시고 전적으로 지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전도하는 자리에 성령님이 감동하시고, 물질을 채워주시고, 기적과 능력으로, 그리고 각종 하늘의 은사로 함께 하십니다. 수많은 인파가 모이고 성령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강력한 은혜의 현장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다름 아닌 전도의 현장인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가만히 보면 모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중심에는 전도의 사명과 영혼구원의 목적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모든 9가지 성령의 은사를 가만히 보면 영혼구원의 사명을 따라 주어지는 은사임을 우린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앉아서 몇날 며칠 주님의 심정을 달라고 성령의 감동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안오는지 이유가 궁금하십니까? 하나님은 영혼을 살리는 현장에서 주님의 심정을 경험케 하시며 성령의 함께하시는 능력을 경험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두란노 교회가 이제는 성령을 경험하고 모시며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삶에 집중해야 합니다. 전도의 영, 예수를 증거하는 영께서 그 사명의 현장에서 놀랍게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주님의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16. 8. 7 주일 예배 이 강화 목사

2016. 8. 14 주일 예배

찬양과 기도 ----- 찬양팀 (인도-구수진 사모)

성 경 봉 독 ----- 여호수아 1장 5~9절

말 씬 선 포 ----- 이 강화 목사

"심령의 변화와 형통"

축 도

두란노 소식 ----- 4면에 있습니다



두란노 교회

예 배 안 내

주일 예배 : 주일 오후 2시

수요 예배 : 수요일 오후 8:00

금요 예배 : 금요일 오후 8:00

새벽 기도 : 화요일~토요일 오전 6:00

